

〈고대 인도와 일본의 옛 경전〉 전시해설

N-8-1 범본심경 및 존승다라니

다라수 잎을 건조시킨 후 양끝을 자르고 가로로 경계선을 그어 ‘반야심경’과 ‘불정존승다라니’를 범자로 기록한 패엽경입니다. 고대 인도에서는 종이가 정착되기 이전에 다라수 잎을 사용한 패엽 사본이 성행했습니다. 이 패엽경은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시됩니다.

N-8부속 역경기

에도 유시마에 레이운지 절을 창설한 진언종 승려 조겐(1639~1702)은 실담(범자 및 범어에 관한 학문)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으며, 범자에 뛰어났습니다. 이 역경기는 1694년에 조겐이 호류지 절에 전래된 범자 패엽경 2엽, ‘반야심경’과 ‘불정존승다라니’를 필사하고 주점(훈독을 위해 붉은 색으로 표시한 기호)과 구의(글의 의의)를 기록한 후,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.

N-14 불명경

『불명경』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입니다. 이 불명경은 과거, 현재,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N-11 현우경 단간(오조무)

이 사경은 13권본 『현우경』 제5권의 사미수계자살품 제23에 해당하는 단간입니다. 필자는 쇼무(聖武)천황으로 전해지지만 자필은 아닙니다. 사경 중에서도 특히 웅대하면서 힘찬 서풍으로 ‘오조무(大聖武)’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

N-14-1 불명경

『불명경』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으로, 중국의 승려 보리류지가 번역한 12권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불명경은 과거, 현재,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제6실 염직 다양한 기법의 염직품

이번 염직 전시에서는 구미히모(끈목)와 스리에(염료를 문질러 무늬를 내는 것) 등, 직조와 염색 외의 장식 기법에 주목합니다.

N-49-1: 옥대 잔결

다채로운 색실을 짙은 색부터 옅은 색까지 층층이 배열해 교차되는 무늬를 표현한 띠입니다. 다양한 색의 유리옥과 진주옥을 실에 미리 펜 후에 직조했습니다.

N-50-1: 산모양무늬 끈목 번두

불사에 사용되는 번의 잔결입니다. 다양한 색실을 사용한 구미히모(끈목)로 산 내지는 화살 것처럼 보이는 무늬를 표현했습니다.

N-319-14: 평견·능 변죽 잔결

가늘고 긴 가장자리 하단과 4개의 변죽을 남긴 잔결입니다.

N-319-34: 평견 번 잔결

가늘고 긴 하단과 변죽의 상부 등을 남긴 잔결입니다. 노란 번은 죽은 이의 추선에 사용되었습니다.

I-336-3a: 갈색바탕 나비무늬 그림 평견 ‘도인’ 명

갈색바탕의 평견에 먹을 사용해 2종류의 나비와 구름무늬를 그려넣었습니다.

I-336-4: 황색바탕 등근 꽃무늬 금은 스리에 라

섬세하게 비스듬한 격자모양 무늬를 짜넣은 라(羅)에 금니와 은니를 사용해 작은 원 모양 꽃무늬를 스리에(염료를 문질러 무늬를 내는 것)로 표현했습니다.

N-319-46: 감색바탕 향로와 촛대무늬 능 변죽 잔결

매우 짙은 감색의 변죽 잔결입니다. ‘향로와 촛대무늬’로 불리지만 무엇을 나타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.

N-319-52-2: 옅은 옥색바탕 평견 변죽 잔결

쪽은 염색 방법과 그 횟수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평견 변죽 잔결은 아주 옅게 쪽으로 물들였으며,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염직물의 세계를 보여줍니다.

I-336-93: 줄무늬바탕 용무늬 자수

색실을 사용해 평건 천조각에 색깔별로 자수를 넣은 뒤 용무늬를 박음질 등으로 수놓았습니다. 이 무늬는 고훈시대의 금속공예 작품과도 유사하여, 일본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
I-336-106: 둥근 원주무늬 자수

체인스티치로 대형의 둥근 원주무늬를 나타낸 잔결입니다. 이러한 무늬는 서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, 고대의 장대한 문화 교류를 보여줍니다.

I-336-108: 흰색바탕 꽃무늬 전

흰 바탕의 전(펠트)에 남색과 옥색, 붉은색, 옅은 붉은색으로 염색한 전을 끼워넣어 꽃무늬를 표현한 것의 잔결입니다.

N-319-115: 황색바탕 바둑판무늬 능 변죽 잔결

평지부문능이라는 옛 기법을 사용해 바둑판 같은 무늬를 표현했습니다. 단순한 반복에 의해 빛이 난반사하는 듯한 효과를 낸 점이 흥미롭습니다.

N-319-117-1: 적색바탕 바둑판무늬 능 변죽 잔결

사각형 안에 줄무늬를 넣은 것과 산길무늬(산모양을 늘어놓은 지그재그무늬)를 넣은 것을 교대로 배치한 능 변죽 잔결입니다.